

국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, 민간투자 사업 신속집행

- 기재부 2차관, 제8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 개최
-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 투자, 민간투자 사업 2월 말부터 본격 집행
- '24년 2월, 관계부처 합동 지자체 집행현장 방문 총 13회 실시

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.29.(목) 16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주재하여 2024년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, 지자체 신속집행 현장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부처: 행안부, 교육부, 국토부, 중기부, 환경부, 국방부, 과기부, 문체부, 해수부, 외교부, 여가부, 금융위 등

김 차관은 “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”고 강조하며,

“주요 29개 공공기관이 연간 목표 63.5조원, 상반기 집행목표 34.9조원(55%)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고, 특히, “계절·연휴 요인 등이 줄어드는 2월 말부터 사회간접자본(SOC)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언급했다.

아울러, 김 차관은 “민간투자 사업은 연간 5.7조원, 상반기 2.7조원(47%)을 목표로 집행할 계획이며, 앞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”이라고 말하였다.

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“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집행현장을 총 13회 방문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”고 밝히며, “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효과 체감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, 각 부처 산하 일선기관(지방청 등)들의 집행상황도 함께 점검해나갈 것임”을 강조하였다.

총괄	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과	책임자	과 장	신대원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신수용 (ssy2516@korea.kr)
공공기관투자	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	책임자	과 장	김수영 (044-215-56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재원 (choijw15@korea.kr)
민간투자	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지훈 (044-215-54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재우 (zeus7009@korea.kr)